

# 楚辭「招魂」의 受容과 擴散

-조선시대 지식형성의 특징을 중심으로-

申斗煥\*

## 目 次

1. 문제의 제기
2. 「초혼」의 문학적 위상
3. 「초혼」의 작품 분석과 조선의 수용양상
4.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초혼」의 수용과 확산을 조선시대 지식의 형성과 특징을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초혼」은 초사 중의 독특한 문체로서 사후세계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과 초나라의 사머니즘, 그리고 민속 문화가 풍성하게 함의되어 있는 고대 시가문학의 걸작이다. 그런 만큼 이 작품이 함의하고 있는 풍부한 상상력과 수사력은 시가 발전의 토대가 되었고, 그 슬픈 감정의 순수한 정감은 상례의 전범으로 발전하였다. 천당과 지옥의 사후세계에 대한 상상력은 동양 역사상 최초의 창의력이었으며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 후대로 오면서 「초혼」은 계속 읽히고 비평되면서 수많은 작품으로 수용되고 확산되면서 최근까지도 초혼의 주제의식은 영화, 대중가요, 시가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확산되고 있다.

「초혼」은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그 위상과 문예미학의 우수성이 입증된 명품이다. 위대한 작품은 수용되고 확산된다. 「초혼」은 조선시대 문인들에 의

\*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해 애송되었고, 지식의 형성과 특징을 바탕으로 수용되고 확산되면서 조선의 만사에 「초혼」의 문구가 없으면 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게 수용되고 있었다. 「초혼」은 다양한 장르에 수용되고 확산되면서 조선의 문학 속에 앙금처럼 녹아서 영롱하게 그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핵심어** 초사, 「초혼」, 조선시대, 수용, 확산.

## 1. 문제의 제기

위대한 작품은 수용되고 확산된다. 「초혼」은 중국 역사상 대대로 수용되고 확산되었으며, 최근까지도 동아시아에서 시가나 대중가요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초혼」은 초사 중의 독특한 문체로서 풍부한 상상력과 초나라의 샤머니즘, 그리고 민속 문화가 풍성하게 함의되어 있는 걸작이다.

그러나 동양 고대의 한문학 작품이 현대어로 번역되는 기구한 과정을 거친 한문시가는 대부분 이미지가 변형되고 굴절되었으며 그나마 암호 같은 시어들을 해독하여 번역은 하였으나 그 본래의 이미지를 잃어버리고 예술성이 왜곡된 채로 우리 앞에 와있다. 그 대표적인 작품 중의 하나가 「초혼」이다. 「초혼」을 지식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동양의 고전시가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미지를 고찰하고 분석하여 그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작업은 끊임없이 연구되어야 한다. 우리고전시가에서 문자메시지의 주술적인 이미지나 생태이미지의 표현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예이다. 고전시가는 그 당시의 분위기로 읽어내야 하며 고대의 사전적 지식과 이미지들을 총동원하여 감상해야 한다.

「초혼」을 위시한 원시고대시가의 문자메시지는 대부분 주술적인 성격을 지니며, 주술적 언어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 인간과 하

늘 등 초월적인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초혼」은 고대의 샤머니즘 사상과 장례문화는 물론이고, 음식문화 주거 문화, 놀이문화 등 다방면의 민속 문화를 풍부하게 함의하고 있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전시가 속에서 우리민족이 지나온 전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구도는 현대에 나타난 해석하기 어려운 이미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뿐 아니라, 그것이 등장하도록 한 미학과 미의식의 진화과정, 이미지와 의식 간의 긴장이 어떻게 예술적 창조로 이어지게 되는가 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의 단서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sup>1)</sup> 고전은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에게 현재적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그 중에서도 「초혼」이 우리의 현대시에 미친 영향으로 본다면 김소월의 「초혼」일 것이다. 이 시는 그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었던 사랑했던 여인의 죽음과 연관된 것으로 그 슬픈 감정의 세계를 초사 초혼에 견주어 폭발시킨 명작이다. 이 작품은 악곡에 입혀져서 대중가요로서 작곡되어 불려지고 있다. 또 최근에는 죽음의 문제와 관련된 가수 장윤정의 대중가요 「초혼」이 인기를 끌고 있다. 「초혼」의 주제의식은 현대에 와서도 영화, 오페라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문학에 「초혼」의 수용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초혼」은 우리문학 속에 어떻게 수용되고 확산되어 왔는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

바이런과 함께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낭만파 시인인 셸리(P.B.Shelley, 1792~1822)는 “가장 슬픈 마음을 노래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시가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을 우리 고전작품에 비추어 보면 「공무도하가」나 「제망매가」와 같은 우리의 고전시가는 아름다움의 극치이다.<sup>2)</sup> 「초혼」 또한 아름다움의 극치이다. 「초혼」은 죽음에 대한 상상력과

1) 신두환(2005).

사후세계를 상상하였으며, 천당과 지옥, 극락정토 같은 최초의 사후세계를 만들었다.

문학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는 크다. 죽음과 관련된 예술, 상여가, 만사, 묘지명, 제문, 노포, 등 묘도문자들과 같이 죽음에 당면하여 생산되었던 문학작품들을 거론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 심연에는 「초혼」이 있다. 사후세계에 대한 상상력. 죽음과 그리움,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한 노력, 기억과 상실. 「초혼」은 예술의 기원을 돌아보게 하고 문학의 심연을 돌이켜 보게 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조사 중에도 죽음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문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은 굴원의 「초혼」일 것이다. 그러나 「초혼」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미하여 종교학적 측면이나, 문학적인 방면에서도 너무나 미미하다.<sup>3)</sup> 그것은 조사 시구가 난해하여 그 해석이 쉽지 않고 그 작품의 이해와 감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깊이 들여다 볼 기회가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초혼」의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그 수용과 확산의 양상을 고찰하고 ‘조선시대 지식의 형성과 특징’의 측면에서 「초혼」을 조명하여 그 문학적 위상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 2. 「초혼」의 문학적 위상

「초혼」은 영혼을 불러오는 데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문제는 관심 밖의 문제다. 그러나 그 허구의 세계인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회고하는 정서의 문제에 문학적 초점이 정조준되어 있다. 죽은 자에 대한 사별의 정한은 ‘영혼이여 돌아오라’는 서럽고 애절한 통한의 외침이었다. 문학은 상상력

2) 신두환(2005).

3) 유인영(1987a), 유인영(1987b).

과 창의력이 경주된 허구의 세계이다. 이런 면에서 「초혼」은 우선 문학의 문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작품이며 동아시아 문학의 기원이 될 만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 중요한 작품이다.

초나라(B.C.848~B.C.221) 시가는 『시경』 이전에도 존재했다. 그런즉, 공자와 굴원이전에도 초사는 있었다. 초사는 중화지역에서 제외된 남쪽 오랑캐의 시가로 독특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굴원은 참소를 입고 추방당하자 자기의 억울한 심정과 충성심을 엮어서 초사의 형식으로 새로운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이것을 西漢시대 劉向이 책으로 재정리하여 붙인 명칭이 『楚辭』가 된 것이다. 초사의 명칭은 이렇게 붙게 되었으며, 초사는 중국 시가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1) 작자에 대한 시비

西漢의 사마천은 『史記』, 「屈原列傳」에서, “내가 「離騷」, 「天問」, 「초혼」, 「哀郢」 등을 읽어 보니 그 뜻이 슬프다. 「초혼」은 굴원(B.C.343~B.C.278)이 지었다.”<sup>4)</sup>라고 하였다. 사마천은 「초혼」은 굴원의 작품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sup>5)</sup> 그러나 동한의 王逸은 『楚辭章句』에서 「초혼」의 작자는 宋玉(B.C.290~B.C.222)이라고 하였다. 굴원의 영혼이 흩어지는 것을 슬퍼하여 그 혼이 살아서 돌아오라고 지은 것이라고 하고 있다.<sup>6)</sup> 기원전부터 「초혼」에 대한 비평과 작자에 대한 시비가 심화되어 왔다.

송나라 때 초사 연구가로 유명한 홍홍조도 『초사보주』에서 ‘송옥은 굴원을 애도하여 지었다.’고 하고 있다. 후대에 초사를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 王逸의 注를 참고하였으나 明代의 黃文煥이 처음으로 왕일의 설을 반대하였다.<sup>7)</sup>

4) 『史記』, 「屈原列傳」.

5) 郭沫若, 『屈原賦今譯』, 人民文學出版社, 1981.

6) 전계서.

초사의 초혼은 송옥이 죄 없이 쫓겨난 굴원의 정신이 흐트러진 채 돌아 오지 않는 것을 슬퍼하여 上帝의 명과 무당의 말을 가탁하여 그 정신을 부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비평론이다. 이 작품은 굴원의 작품이라는 설과 송옥의 작품이라는 설이 대두되고 있었다.

주희는 송옥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조선시대 문인들은 주희의 『초사집주』의 영향으로 대부분 송옥의 작품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시켜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북쪽을 향해 서서 “皁 某復”이라고 외치고 죽은 사람의 옷으로 세 번 외치고 내려와서 그 옷을 시체에 덮는다. 이 禮를 復이라 하고 해설하는 사람들은 招魂·復魂이라 하며 사랑의 道를 다하고 禱祠의 일을 다했다고 여기는데, 아마도 그 다시 살기를 바라는 것인 것 같다. 이같이 했는데도 살지 않는다면 다시 소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장례를 치룬다.

송옥은 굴원이 죄 없이 추방당하고 쫓겨난 것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아마도 그 혼백이 흩어져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드디어 국속에 따라서 임금의 명을 가탁하여 무당의 말로써 그 혼을 부른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말은 진실로 비루하고 촌스러운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돌아오라고 빌기를 다하였다. 그런즉 이것은 고인이 남긴 뜻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태사공이 읽고서 그 뜻이 슬프다고 하였다. 만약 扈公의 이야기와 황음의 뜻인 즉 옛사람들이 어찌 굴원의 잘못을 나무라겠는가? 이것은 굴원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작자에 대해서 모두들 다시 논하지 않는다.<sup>8)</sup>

이것은 『초혼』이 만약 송옥이 지은 것이라면 굴원의 영혼으로 간주되는 데, 그렇다면 작품 내용에서 扈公의 이야기와 황음의 이야기를 늘어놓아서 영혼을 유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된다. 굴원은 애국시인이고 충성이 넘치

7) 黃文煥, 『楚辭听直』, 中華書局.

8) 周成華, 『先秦文學觀止』, 吉林大學出版社, 2010.

는 지조와 절개가 있는 선각자이다. 만약 굴원의 영혼을 불러 온다면 초혼의 내용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타당한 논이다.

「초혼」은 진나라에서 객사한 초나라 회왕의 영혼을 유도하기 위해 굴원이 지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궁실, 거처, 음식, 여색, 놀이, 등 쾌락적인 일들을 나열하여 부른 것이지, 만약 굴원의 혼이라면 이렇게 유도하지 않고 임금에 대한 충성과 신하의 올바른 도리로 혼을 불렀을 것이다. 송옥이 지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견강부회이다. 대부분 초사 연구가들은 이 작품을 굴원의 작품으로 이해하고 있다.

양계초는 초사는 어느 한시기 한 작가가 지은 것이 아니다. 후대로 오면서 사람들이 추가하고 보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러 설을 종합해 볼 때 작자가 누구이든 간에 이것은 초나라 회왕의 장례식 때 거행된 의식행위로 보이며 초나라 민간풍속을 바탕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한 작품으로 보인다. 「초혼」의 주제의식을 생각해 볼 때 작품 속의 주인공이 초나라 회왕이 아니라면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 (2) 작품의 시대적 배경

춘추시대(B.C.770~403)때부터 남방의 초나라는 강국으로 등장했다. 초나라의 장왕은 주나라 九鼎의 무게를 물으며 천자의 정통으로 내려오던 주나라를 압박했다. 춘추시대 패권을 놓고 오나라와 월나라가 패권을 다투었지만 춘추시대의 패권은 결국 월나라를 망하게 한 초나라였다. 이처럼 초나라는 일찍이 역사무대에 등장하여 춘추 전국시대에도 강국으로 남았다. 진이 강성해지자 B.C. 318년 초나라의 懷王은 진 동쪽의 위·조·한·연·제와 함께 남북으로 동맹하는 合從策으로 진에 대항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진은 6국 각각과 동맹하는 連橫策을 써서 합종을 방해하고 계속적인 침략으로 여러 중원 국가들 가운데 우위를 차지했다.

초나라 회황은 기원전 329년에 즉위하여 296년까지 재위한 초나라 군

주다. 이름은 槐이며 초 威王의 아들이다. 집정기간 중, 제나라와 합종을 맺어 진나라의 동진을 막았다. 이에 진나라 惠王이 장의를 보내 제나라와 절교를 하면 그 대가로 상오의 땅 6백 리를 할양하겠다고 했다. 상오의 땅을 탐낸 회왕이 제나라와 절교를 하고 사람을 보내 상오의 땅을 받아오게 했다. 그러나 장의는 당시 주기로 한 땅은 6리라고 발뺌을 했다. 분노한 회왕이 군사를 일으켜 진나라를 공격했으나 계속된 싸움에서 많은 군사를 잃고 영토를 빼앗겼다. 진나라 혜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昭王이 회담을 제의하자 속임수에 놀아나 武關 들어간 회왕은 진나라에 의해 억류되고 말았다. 진나라는 회왕을 협박하여 초나라 땅의 할양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구금된 상태로 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탈출에 성공했으나 진나라의 추격군에게 사로잡혀 결국은 환국하지 못하고 진나라에서 암살당해 죽었다.

진나라 양왕 3년에 진나라가 초나라와 사이를 좋게 하고자 하였다. 진나라의 화친책으로 회왕의 상여가 초나라로 돌아오자 초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를 불쌍하게 여겨서 마치 친한 친척이 죽은 것처럼 슬퍼했다. 초나라 사람들은 진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우고 있는 것 외에도 왕이 암살당할 때에 비굴하게 굴복하지 않은 것은 결국 기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회왕의 행적은 사람들의 슬픔과 그리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굴원은 회왕의 신용을 받았다가 나중에 미운 털이 박혔으나 늘 왕이 깨닫기를 바랐다.

초사 「초혼」은 회왕의 상여가 돌아오자 초나라 국가 차원에서 장례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회왕의 시체는 돌아왔지만 혼령은 흩어져서 못 돌아왔다고 판단하여 회왕의 영혼을 불러 오기 위해 초나라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초혼의 의식을 거행한 것으로 보인다.

### (3) 작품의 구성과 내용

이 작품은 총 1206자 141문단 270구로 이루어진 장편이며, '序辭'·'招魂辭'·'亂辭'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혼사」는 다시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은 진나라를 상징하며 진나라에서 죽은 초나라 회왕의 영혼이 진나라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곳은 영혼이 머물 수 없는 공간으로 꾸며서 천지 사방의 악을 진술한 것이고, 뒷부분은 고향인 초나라로 영혼을 유도해 오기 위해 초나라를 처당 혹은 극락정토로서 묘사하여 초나라의 아름다움을 극진히 표현한 것이다. 즉, 진나라와 초나라가 지옥과 극락세계의 대립적 구도로 전개되었다. 일반적으로 「초혼」에는 '序辭' 부분과 '亂辭'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뒤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초혼」은 270구의 장편 시가로서 '序辭', '本辭-招魂辭', '亂辭'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序辭'는 상제, 곧 하느님의 명으로 무당 무양의 구기를 통해 영혼을 인도하게 되는 문답식 구도로 구성되어 있다. '本辭-招魂辭'의 전반부는 천지 사방에 온갖 악령들과 괴물들을 등장시켜 공포를 조장하고 무서운 지옥의 세계를 상상하여 영혼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설정하고 있다. 무서움과 공포를 조성하는 기발한 창의력과 상상력은 일찍이 없었던 문장 구사력의 이체다. 후반부는 초나라를 미화시킨 극락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궁실의 건축에 대한 지극한 아름다움, 장강의 아름다운 자연조건과 온갖 기화요초로 꾸며진 정원, 정자의 원림, 각종 음식, 여색, 음악, 놀이 등 초나라의 민간에서 유행하던 토속 신앙과 다양한 민속 문화를 바탕으로 누릴 수 있는 인간계의 지극한 쾌락적인 묘사를 통해 천상의 낙원으로 꾸며지는 대립적 구도를 지향하고 있다. '亂辭'는 작품 속에 내재된 초월적인 세계관과 영혼의 불멸을 통해 상상되는 인생관 그리고 가치관 등이 새롭게 설정되고, 염세주의와 쾌락주의 낭만주의와 유태주의의 순수한 감정의 유로를 통해 드러나는 아름다운 문장은 수사력 극치를 보여준다. 「초혼」은 고대 시가

의 걸작으로 초사 중의 압권이다.

본문의 전반부는 지옥의 형상으로 구성되어 공포조성 즉 무서움을 만들고, 후반부는 초나라의 풍속을 바탕으로 차려진 빈소를 중심으로 극락의 세계로 꾸며지고 있다. 이것은 천당과 지옥의 두 개념이 원시적으로 설정되던 초나라의 민속의 사머니즘 요소들을 채집하여 구성된 것이다. 이것은 극락과 지옥의 불교적 세계관이 중국에 전래되기 전의 일이다. 이 작품은 사후세계인 저승세계를 상상하면서 천당과 지옥을 상상한 최초의 작품이다. 이것이 발전되어 禮로 설정되고 이 많은 민간적 요소들이 유가적 요소와 결합하여 지식의 형성과 특징이 상례 속으로 들어가면서 수용되고 확산되어 간 것이다.

‘亂辭’는 이 작품을 총정리한 것이다.

目極千裏兮 傷春心

魂兮歸來 哀江南

시선 끝까지 펼쳐지는 광활한 강남의 대지에 이름답게 펼쳐지는 봄 풍경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한다. 「초혼」은 봄에 지어진 것으로 강남의 이른 봄 풍경이 애상적이고 이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후세의 시인인 杜甫의 「春望」은 다음과 같다.

나라는 망했어도 산하는 그대로 있어  
성안의 초목에는 봄기운이 가득하다  
시국을 생각하니 꽃에도 눈물을 뿌리고  
이별을 한탄하니 새가 놀란다

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  
感時花濺淚  
恨別鳥驚心

두보는 망국의 한으로 봄을 바라보면서 상심에 젖었고, 꽃을 바라보며 눈물을 뿌리던 봄 어느 것인들 수심겨워 하지 않았던가? 이처럼 「초혼」의

주제의식은 후세에 傷春의 전통에 영향을 끼친 것이 크다.

「초혼」의 내용과 형식은 초나라 민간에서 유행하던 고대 장례식의 전형으로 ‘초혼’에 대한 의례의 형식을 슬프고 아름다우며 정경교양의 수법으로 창작한 것이다.

#### (4) 「초혼」에 대한 제가들의 비평

「초혼」의 비평은 일찍부터 있었다. 사마천이 사기에서 슬픈 뜻이 있는 작품으로 비평한 이래로, 초혼에 대한 명 비평으로 “「초혼」의 전반부는 천지사방의 악을 진술했고, 후반부는 초나라의 아름다움을 숭상하였다.[外陳四方之惡 內崇楚國之美]”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구는 사마천의 설을 바탕으로 후대 사람이 지은 것이다.

劉勰은 『文心雕龍·辨騷』에서 「초혼」을 빛나고 고우며 깊고 아름답다.[耀豔而深華]라고 평하였다.<sup>9)</sup>

宋나라 洪興祖는 『楚辭補注』에서 「초혼」을 “外陳四方之惡 內崇楚國之美”의 시구를 이용하여 이 시는 초나라 회왕의 어리석음을 풍간하여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었다<sup>10)</sup>고 하였다.

明나라 陸時雍은 「초혼」은 “문장 수식의 극치이다. 그러나 귀신의 무력과 능력을 사람들은 그 이하를 엿보려 하지 말라.[文極刻畫 然鬼斧神工人莫窺其下處]”라고 하였다.<sup>11)</sup>

明나라 楊慎은 『丹鉛雜錄』 권8에서 “「초혼」一篇은 그 언어구사력이 풍부하고 울창하여 농후하게 빼어나고 선구가 되어 말을 채찍질하여 이후

9) 蔣之翘. 『七十二家評楚辭』(卷七)[M].

10) 洪興祖, 『楚詞補注』, 「招魂」. 外陳四方之惡, 內崇楚國之美, 以諷諫懷王, 冀其覺悟而還之也.

11) 蔣之翘. 『七十二家評楚辭』(卷七)[M].

의 반고와 양웅에게로 몰아갔으니 천고의 드문 소리이다.[其辭豐蔚穠秀 先驅枚馬 而後羈班揚 千古之希聲]<sup>12)</sup>”라고 하였다.

明나라 孫礦은 “그 구상이 기발하고 언어의 구사력이 아름다우며 괴이한 이야기들이 잘 갖추어져서 자세하게 그 실마리를 진술하여 그 상상력의 변화가 무궁하니, 이것이 바로 천지간의 아름다운 문자이다. 瑰瑋美가 넘친다.[構法奇 撰語麗 備談怪說 瑣陳縷述 務窮其變態 自是天地間瑰瑋文字]<sup>13)</sup>”

淸나라 東方樹는 『昭昧詹言』에 “내가 굴자의 다른 편들을 읽었으나 모두 빠져들지 않았으나 그옥이 창의와 창격과 조언들을 볼 때에 초혼보다 괴이한 것은 있지 않았다.[吾讀屈子他篇 未暇悉淪 竊以創意創格造言 未有詭於招魂者也]<sup>14)</sup>”

淸나라 蔣驥는 『山帶閣注楚辭』 卒章에서 “혼이여 돌아오라 강남이 슬퍼한다 이것이 작품의 요지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허황된 말일 뿐이다. 애강은 즉 먹리수에 있다. 혼을 불러 이곳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인즉 대개 『회사』의 뜻이다.[魂兮歸來哀江南 乃作文主旨 其餘皆幻設耳 哀江卽汨羅所在 招魂歸此 蓋卽懷沙之意]<sup>15)</sup>”라고 하였다.

梁啓超는 『要集解題及其讀法』에서 “『초혼』은 염세주의와 현실쾌락주의를 대립시켜 극력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실로 전 초사 중의 가장 감미롭고 자유로운 구사력이 넘치는 글이고 가장 심각한 작품이다.[實全部楚辭中最酣肆最深刻之作]<sup>16)</sup>”라고 하였다.

賈捷은 “음식, 거처, 유희, 여악, 陳設 등 鋪張의 能事를 극진히 묘사했다. 이 작품은 한나라 賦의 선구가 되고, 枚乘의 『七發』, 庾信的 『哀江南

12) 전계서.

13) 전계서.

14) 『辭海』, 『辭海編輯組』, 上海辭書出版社, 2009.

15) 전계서.

16) 梁啓超, 『梁啓超全集』, 『要籍解題及其讀法』, 北京出版社, 1999.

賦』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sup>17)</sup>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초사 「초혼」에 대한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그 위상을 파악해 보았다. 초사 「초혼」은 초나라를 천상의 낙원으로 설정하고 낭만성과 순수성이 어울려지고 괴외미가 넘치는 아름다운 수사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초혼」은 유미주의와 낭만주의 문학의 선구였던 것이다.

### 3. 「초혼」의 작품 분석과 조선의 수용양상

조선의 만사에도 「초혼」을 수용한 것이 많다.

초혼의 노래로 살릴 수 있으련만  
초신의 재주 없는 게 부끄럽구나

招魂賦可作  
愧乏楚臣才<sup>18)</sup>

갈암 이현일은 초사 「초혼」을 이용하여 만사를 이렇게 지었다.

「초혼」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신라시대이다. 신라시대 당나라의 국자감을 본받아 신라에 국자감을 만들고 그 교재도 유입해 왔는데 그 때에 소통의 『文選』도 들어 왔고, 거기에 초사 「초혼」도 들어 있었다. 그 이후 우리나라에는 초사가 인용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주희의 『초사집주』의 영향이 컸으며, 특히 초혼은 주희가 주자가례 상례 부분을 저술할 때 참고가 되었던 작품이며, 죽음과 관련된 글 속에서 「초혼」은 왕성하게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어찌 생각했으랴 진의 학정이 멈추어  
초사의 슬픔에 놀라게 될 줄을

豈意秦春輟  
翻驚楚些哀<sup>19)</sup>

17) 周建忠, 賈捷 註評, 歷代名著精選集『楚辭』, 鳳凰出版社, 2006, 189-200쪽.

18) 『갈암집』, 계축추보, 부록, 「輓詞(洪宇夏)」.

|                       |                        |
|-----------------------|------------------------|
| 화산의 한 번 이별 이승 저승 갈렸으니 | 華山一別幽明隔                |
| 초사로써 흐느끼며 초혼할 길 전혀 없네 | 無路招魂泣楚些 <sup>20)</sup> |

|                  |                      |
|------------------|----------------------|
| 태평성대는 못 만났다 할지라도 | 聖代雖非遇                |
| 초사의 초혼은 슬프기 그지없네 | 堪嗟楚些招 <sup>21)</sup> |

「초혼」의 문장이 구절 끝마다 些 자가 있으므로 혼을 부르는 글을 말한다. 보통 시부는 “~兮여, ~로다.”라고 하여 전구에 兮를 쓰는데, 「초혼」에서는 특이하게 “~여, ~些. 로다.”라고 하여 뒷구절 끝에 쓰인다. 些는 주술 어구 뒤에 쓰이는 語辭이다. 楚些는 『楚辭』 招魂의 구절 말미마다 “些”로 끝나는 것에서 유래하여 초혼가를 뜻하는 표현이 되었던 것이다.

### (1) 「초혼」〈序辭〉의 수용과 확산

다음은 「초혼」의 원문, 〈序辭〉이다.

|                      |          |
|----------------------|----------|
| 짐은 어려서부터 청렴개결 했었네    | 朕幼清以廉潔兮  |
| 몸소 의를 실천함에 주저함이 없었네  | 身服義而未沫.  |
| 이 융성한 덕을 주관했음이여      | 主此盛德兮    |
| 그러나 세속에 이끌려 문혀졌도다    | 牽於俗而蕪穢.  |
| 상제는 이 盛德을 살피지 않았네    | 上無所考此盛德兮 |
| 길이 재앙에 걸려서 괴로워했다     | 長離殃而愁苦.  |
| 상제께서 무양에게 곱하네        | 帝告巫陽曰    |
| 어떤 인간이 하계에 있으니 그를 불러 | 有人在下     |
| 나를 보필하게 하고 싶네        | 我欲輔之.    |
| 그의 혼백이 떠나 흩어졌으니      | 魂魄離散     |

19) 『갈암집』, 제5권, 부록, 「輓詞(裴正徽)」.

20) 『고봉별집』, 부록, 제2권, 「挽章(栗谷 李珣)」.

21) 『사가시집』, 제12권, 「四和」其一.

|                        |          |
|------------------------|----------|
| 너가 곳을 하여 혼을 불러라        | 汝筮予之.    |
| 무양이 대답하기를 장몽이여         | 巫陽對曰 掌夢  |
| 상제의 그 명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 上帝其難從.   |
| 반드시 곳을 하여 그 혼을 불러와서    | 若必筮予之.   |
| 뒤에 그에게 용서를 빌더라도        | 恐後之謝     |
| 다시 쓰일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 不能復用.    |
| 무양이 이에 하계에 내려와서 혼을 부르네 | 巫陽焉 乃下招曰 |

초사의 序辭는 굴원이 지었다고 보는 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서는 상제가 주관하는 천상과 인간세상인 하계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천상을 주관하는 상제 즉 하늘님의 출현과 천상과 하계를 오가는 무당 무양의 출현이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기발하다. 巫陽의 巫는 여자 무당을 지칭하고 이름이 陽이다. 참고로 뒤에 출현하지만 남자 무당은 祝이다. 그리고 ‘掌夢’은 掌夢이라고도 하는데 이 일을 주관하는 관리이다. 천상의 세계가 무한히 넓지만 천제인 상제, 장몽, 무양의 직제로 꾸며진 것을 상상하였다. 이것은 동양 역사상 처음으로 서술되는 천상의 서술로서 그 상상과 창의력에 대해 경이로움이 솟는다. 물론 이것은 초나라의 임금과 신하 민간 풍속이 원시종합예술로 창작되어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천제가 하계를 내려다 보니 초나라 회왕의 기구한 운명이 불쌍해 보였다. 천제는 그를 불러 신하를 삼아 자기를 보필하게 하고 싶어 한다. 이에 무양에게 곳을 하여 흩어진 영혼을 부르게 한다. 상제는 무양에게 명하였다. 무양은 상제의 신하로서 이 일을 주관하는 장몽에게 그 어려움을 고한다. 무양의 구기에서 나온 초혼의 가사를 통해 초나라 회왕의 혼을 불러와도 그를 보살피지 못한 천제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더라도 천제가 원하는 신하의 임무를 할 수 없을까 두려워한다. 이에 천제의 명을 따라 무양이 지상에 내려와 혼을 부른다는 것이다. 한편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이야기 구조가 서사적이다. 동양의 서사가무의 시원이라고 보여지는 이 「초혼」

의 서사는 우리 문학사나 민속학적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 의의가 대단한 작품이라고 사료된다.

이 작품은 역사의 흐름을 타고 전해 와서 어떻게 지식으로 형성되고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수용되고 확산되었을까? 조선전기 서거정은 다음과 같이 시를 읊었다.

|                      |                       |
|----------------------|-----------------------|
| 그러나 내 어려서 끝없이 청결했음이어 | 然予幼清之未沫兮              |
| 조용히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수양했네 | 漠虛靜以自脩 <sup>22)</sup> |

서거정은 『초혼』, <서사>의 “짐은 어려서부터 청렴개결 했었네 몸소의를 실천함에 주저함이 없었네.[朕幼清以廉潔兮 身服義而未沫]”를 전고로 사용하였다. 그리고는 이것을 축약하여 “予幼清之未沫兮”로 환골탈태시켰다. 역사적으로 그 먼 길을 돌아 조선에 이르러 서거정에게도 읽히었다.

초사 『초혼』의 <서사>에 처음 등장하는 하늘의 임금 상제, 그리고 천제의 명을 따라 움직이는 여자 무당 무양의 출현에 대해 조선의 문인들은 어떻게 지식으로 형성시켜 나갔을까?

계곡 장유는 『초혼』에서의 무양의 출현을 두고 다음과 같이 점철성금하고 있다.

|                       |                        |
|-----------------------|------------------------|
| 계다가 풍후와 역목 곁에 있으니     | 風后力牧在帝傍                |
| 번거롭게 무양을 보내 불러올 필요 있나 | 下招不煩遣巫陽 <sup>23)</sup> |

巫陽은 고대 신화에 나오는 무당의 이름으로, 天帝의 명을 받들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들인다고 보고 있다.

22) 『사가시집』, 제1권, 『山中之樂辭』.

23) 『계곡집』, 제26권, 『長城行』.

김창협은 이를 다음과 같이 수용하고 있다.

|                   |                      |
|-------------------|----------------------|
| 무양 하늘 올라간 지 오래이거니 | 巫陽久上天                |
| 아서라 그 무엇을 슬퍼하리오   | 已矣將何悲 <sup>24)</sup> |

곧 넋을 불러올 수 있는 신통한 무당인 무양도 하늘로 올라가고 없는 오늘날, 슬퍼해 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뜻으로 수용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중기 천재 시인 崔崧은 다음과 같이 수용하고 있다

|                              |                        |
|------------------------------|------------------------|
| 늦게 낳은 자식이라 더더욱 애착이 깊었는지      | 人情鐘愛晚生兒                |
| 배 타고 피난하면서도 늘상 껴안고 지냈어라      | 避寇舟中膝不離                |
| 府尹으로 부임할 때 데리고 갈까 생각하며       | 提挈擬將隨尹府                |
| 말을 입 밖에 내자마자 巫陽이 그만 내려왔네     | 語言翻已下巫師                |
| 참혹해라 너의 향골 타향에 묻고 말았는데       | 埋香慘絕他鄉寄                |
|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꿈속에 찾아와 주었구나    | 入夢依然昔日爲                |
| 이 아비 강변에 머물면서 너의 뜻을 알았나니     | 及我江干知汝意                |
| 강 건너 서쪽 천 리 길엔 안부 물을 수 없을까 봐 | 江西千里得通遲 <sup>25)</sup> |

최립은 무양을 천제의 명을 받고 딸을 하늘로 전송해 간 저승사자로 형상화하고 있다.

소재 노수신은 무양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                      |                      |
|----------------------|----------------------|
| 혼백이 오래도록 이산되었으니      | 魂魄久離散                |
| 오직 천제가 무양을 보내기만 바랄 뿐 | 惟帝其遣巫 <sup>26)</sup> |

24) 『農巖集』, 제2권, 「記夢」.

25) 『간이집』, 제6권, 癸巳行錄, 「夢殤女」其二.

26) 『소재집』, 제2권, 詩, 「沃州二千言」.

「초혼」에 “천제가 무녀 무양에게 고하기를 ‘현인이 아래 있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의 혼백이 이미 이산되었으니, 네가 점을 쳐서 그의 혼백을 찾아 되돌려 주거라.’ 하네.[帝告巫陽曰 有人在下 我欲輔之 魂魄離散 汝筮予之]”라고 한 것을 원용하였다. 현인은 곧 굴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 저자는 역시 혼백의 처지를 굴원에 빗대고 있다.

이처럼 조선 문인들은 「초혼」의 <서사> 부분을 지식으로 형성하여 시에 응용하였던 것이다.

## (2) 「초혼」 〈本辭〉의 수용 및 확산

「초혼」 本辭의 전반부는 천지 사방을 지옥의 공간으로 창출해 낸다. 이 초월적인 공간인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작가는 무양의 구기를 통해 영혼에게 공포를 조성하여 혼이 있을 곳이 못되는 것을 강조하여 영혼을 인도하는 방법을 추구한다. 동방의 거인은 산동지방의 신화에 자주 나타난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다. 그래서 태양의 열기를 상상하여 공포화했다.

이 부분을 조선의 문인들은 어떻게 지식으로 형성하였으며 그 수용의 특징은 어떠한가?

석복 신평수는 「반초혼」에서 동방의 공포부분을 반대로 활용하고 있다.

혼이여 돌아오지 말라 동방은 그대가 의탁할 만한 곳이니

魂兮無歸 東方可以托些

淸平山 맑은 기운 평평한 바위여

淸平之山 淑氣磅礴些

소양강은 五臺山에서 발원해 오고

昭陽之水 五臺發脉些

청평산 구송대 와 影池는울창하고 신령스런 땅

九松影池 地靈鬱蓄些

백조의 알 같은 그윽한 방은 옛날 현자의 쉼터라

鵠卵濛室 古賢之息些

아름다운 산천에 길이 머물러라

山川洵美 厥兆永卜些

관의 문이 이미 닫혔으니 혼백은 편안하리다

玄窞既閉 安體魄些

석복은 「초혼」의 형식을 고수하며 그 뜻을 반대로 하여 자유롭게 파격 시키고 있다. 영혼을 돌아오지 말라고 하였다.

상춘 신흘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봉호는 천묘에 우글거리고

封狐竟千畝

복사 또한 사방에 쌓였으니

蝮蛇亦綦綦<sup>27)</sup>

봉호는 큰 여우를 말하고, 蝮蛇는 독이 있는 큰 뱀을 말하는데, 炎土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많이 해친다는 뜻으로, 「초혼」의 “복사가 쌓여 있고 봉호는 천리에 우글거린다.[蝮蛇綦綦 封狐千里]”라고 한 것을 원용한 말이다.

미수 허목은 다음과 같이 활용하고 있다.

천오 구수 삼각이 함께 열 지어

天吳九首三角駢列兮

들락날락하면서 멋대로 즐긴다

群出沒而遨嬉<sup>28)</sup>

「초혼」의 전반부는 공포를 조성하는 글들로 상상력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 허구를 구상하고 꾸며 낸 것은 ‘지옥의 세계’에 너무나 가깝다.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초혼」의 <본사> 전반부를 지옥에 비교하고 있다.

27) 『상춘집』, 제5권, 『送秋浦使日本』.

28) 『기언』, 제63권, 『感遊』.

“어떤 사람이 ‘지옥에 대한 말이 宋玉의 『초혼』에서 근본 하였는데, 長人이나 土伯은 夜叉와 羅刹 같은 유이며, 爛土나 雷淵은 刀山과 劍樹 같은 것이다.’ 하였다. 이는 文人의 寓言이지만 그 뜻은 이미 지옥론에 가까운 것이다. 이 때문에 魏·晉 이후의 문인들이 마침내 그의 말을 부연하여 불교의 글에다 부합시킨 것이다. 옛적에 宋儒 胡寅은 ‘閻立本이 地獄變相圖를 만들었는데 周興과 來俊臣이 그것을 입수하여 더욱 심한 지옥론을 이룩하였다.’ 하였으니, 이는 사실 송옥의 『초혼』이 지옥론의 시초가 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였다.<sup>29)</sup>

이 글에서는 지옥설이 『초혼』에서 유래 된 것이라고 고증하고 있다. 불교의 지옥설과 『초혼』 <본사>의 전반부는 서로 통하고 있다. 사후세계의 지옥에 대한 상상력은 『초혼』이 그 시초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                        |                        |
|------------------------|------------------------|
| 붓을 들면 천하의 묘한 문장 펼쳐내니   | 落筆文章妙天下                |
| 관문 지키는 호표도 조참을 선뜻 허락하리 | 當關虎豹許朝參 <sup>30)</sup> |
| 천제 이에 호표 보내 하늘 대문 지키거니 | 帝遣虎豹守天關                |
| 부주산서 길 끊어져 수레 굴대 부러졌네  | 絕道不周摧車轅 <sup>31)</sup> |
| 온갖 부정이 감히 접근 못하여라      | 百邪不敢近                  |
| 호표는 구중문을 엄히도 지키네       | 虎豹嚴重關 <sup>32)</sup>   |

위의 시구들은 『초혼』에, “혼이여 돌아오라, 그대는 하늘을 오르지 마소. 호표가 구중문을 엄히 지켜, 아래 인간을 물어뜯는다네.[魂兮歸來 君無上天些 虎豹九關 啄害下人些]”라고 한 것을 원용한 말이다. 『초혼』에

29)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3, 석전류 2, 석전잡설, 『地獄辨證設』.  
 30) 『간이집』, 제4권, 『上郎中書』.  
 31) 『동명집』, 제1권, 『古行路難』.  
 32) 『목은시고』, 제12권, 『古意』.

“호표가 구중의 天門을 지켜 下界에서 오는 자를 저지한다.[虎豹九關 啄害下人些]”라고 하였다. 皇宮을 지키는 무시무시한 武將이라는 뜻이다. 전국 시대 楚나라 宋玉의 「초혼」에 “호랑이와 표범이 아홉 겹의 하늘 문을 지키면서, 아래 세상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잡아먹네.[虎豹九關 啄害下人些]”라는 표현이 있다. 또 남쪽 지방에는 꼬끼리처럼 큰 붉은 개미와, 조롱박처럼 검은 벌[赤蟻若象 玄蜂若壺]이 독을 쏘아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말이 전국 시대 宋玉이 지은 「초혼」에 나온다.

|                       |                        |
|-----------------------|------------------------|
| 토백은 구불구불 아홉 번 구부러진 몸에 | 土伯盤困九約身                |
| 뿔족한 두 뿔이 하늘을 찌를 듯하네   | 鬐鬐雙角拄穹旻 <sup>33)</sup> |

토백은 后土의 侯伯으로 땅의 신이다. 「초혼」에 “토백은 몸이 아홉 번 구부러지고 그 뿔이 뿔족하다.[土伯九約 其角鬐鬐些]”라고 하였다.

이상 「초혼」의 <本辭> 전반부에 대한 조선 문인들의 인용부분을 찾아내어 그 수용의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 (3) 「亂辭」의 수용 및 확산 양상

다음은 「초혼」의 <난사>이다.

|                       |            |
|-----------------------|------------|
| 난에 이르기를               | 亂曰         |
| 지난해 봄에 강남으로 쫓겨 갈 때    | 獻歲發春兮 汨吾南征 |
| 녹두 마름 구리 때 돌아났는데      | 籛蕪齊葉兮 白芷生  |
| 여강을 가로질러 장박을 지나서      | 路貫廬江兮 左長薄  |
| 소에 의지하여 허허벌판 바라보았네    | 倚沼畦瀛兮 遙望博  |
| 푸른 말 기러에 필마로 천승을 따라가니 | 青驪結駟兮 齊千乘  |
| 곳곳에 커튼 불 하늘을 찌르는데     | 懸火延起兮 玄顏烝  |

33) 『어우집』, 제1권, 「謔瘧鬼」.

|                              |             |
|------------------------------|-------------|
| 보병은 앞서 달려 사냥을 인도하고           | 步及驟處兮 誘騁先   |
| 서서히 인도하며 우측으로 돌아오네           | 抑鷲若通兮 引車右還  |
| 왕과 함께 몽 땅에서 앞뒤 일을 논할 때       | 與王趨夢兮 課後先   |
| 왕이 친히 활을 쏘아 푸른 물소 놀라게 하니     | 君王親發兮 憚青兕   |
| 낮과 밤이 이어져 세월은 멈출 수가 없네       | 朱明承夜兮 時不可以淹 |
| 난초 핀 언덕도 오랜 세월 지나면 사라지겠지     | 皋蘭被徑兮 斯路漸   |
| 넘실대는 강물에 단풍이 있구나             | 湛湛江水兮 上有楓   |
| 눈으로 천리 속을 바라보니 봄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 目極千裏兮 傷春心   |
| 혼이여 돌아오라 강남땅이 슬퍼하네           | 魂兮歸來 哀江南    |

추사 김정희는 척독에서 獻發을 언급하였다.

17년 동안을 해와 달이 비추지 않는 그늘진 벼랑과 캄캄한 구덩이에서 지내노니, 이것이 鬱單洲입니까, 疏屬山입니까? 이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獻發과 新舊를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sup>34)</sup>

獻發은 새해가 오고 봄기운이 발양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초사』 <난사>에 “해가 새로이 이르고 봄기운이 발양하건만, 나만 혼자 쫓겨나서 남으로 가네.[獻歲發春兮 汨吾南征]”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추사는 초사 『초혼』을 탐독하고 그 오묘한 뜻을 인용하고 있었다.

산택재 권태시의 『擬擬招辭』는 『초혼』을 본뜬 것이다. 이것은 우리 문학사에 있어서 초사의 수용과 변용의 이정표를 밝혀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산택재는 『초혼』을 송옥이 지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본떠 藍田 呂大臨이 지은 『擬招辭』를 다시 模擬하여 지은 것이다. 이 작품이 실려 있는 『산택재문집』은 문학의 방면에서 중요한 연구 자료이다.

34) 『완당전집』, 제3권, 『與權彛齋』. 十七年陰厓坎窞 日月所不照 鬱單之洲歟 疏屬之山歟 何以與譏於獻發新舊.

산택재는 呂大臨의 「擬招辭」를 어디서 보았을까?

주희는 崑원의 賦 25편을 「離騷」, 송옥 이하 16편을 「續離騷」라 하여 『楚辭集注』 8권을 짓고, 周나라의 荀卿부터 송나라의 呂大臨까지의 52편을 『楚辭集注』 6권에 수록하였으며, 부록으로 『楚辭辨證』 상·하 2권을 만들었다. 여대림의 초사는 『초사집주』의 『초사후어』에 들어 있는 작품이다.

산택재는 「擬擬招辭」를 지으면서 이 작품을 짓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병기해 두었다.

옛날에 藍田 呂大臨<sup>35)</sup>이 송옥의 楚辭「招魂」을 모방하여 「擬招辭」를 지었다. 이는 버려진 마음을 구하여 본성을 회복한다는 은미한 뜻을 寓意한 것이다. 나는 그 가사의 뜻이 그윽하고 심오하며, 그 조심함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간절한 것을 좋아하여, 그 체를 본받고 싶어 했다. 아침저녁으로 폐에 명을 새겨 지니려고 여겼지만, 돌아보건대 사유가 너무 평범하고 필력이 위약한 것이 한스러웠다. 비록 옛 사람의 만분의 일도 행할 수 없을 지라도 또한 각자 그 뜻만을 말하는 것이니, 고로 여기에 기록하여 삼가고 반성하는 자료로 삼고자 한다.<sup>36)</sup>

여대림의 「擬招辭」는 버려진 마음을 찾아 본성을 회복한다는[求放心復常性] 은미한 뜻에 우의한 것이다. 이것은 『孟子』 「告子上」에 “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義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말미암지 아니하며, 그 마음을 버리고 찾을 줄을 모르니, 불쌍하다! 사람은 닭과 개가 나가면 그것은 찾을 줄을 알면서, 마음이 나가 있는데도 찾을 줄을 모른다. 학문

35) 송나라 京兆 藍田 사람이다. 처음에 張載에게서 배웠고, 나중에 程頤의 제자가 되었다. 謝良佐, 游酢, 楊時와 함께 程門四先生으로 불린다. 呂大忠, 呂大防, 呂大鈞, 呂大臨 형제가 그 고을 사람들과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자치 규범인 『藍田呂氏鄉約』은 인구에 회자된다.

36) 『산택재집』, 권1, 「擬擬招辭」.

의 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버려진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仁人心也 義人路也 舍其路而不由 放其心而不知求 哀哉 人有鷄犬放則知求之有放心而不知求 學問之道 無他 求其放心而已矣]"라고 한 말을 떠올리며, 우의한 것이었다. 산택재는 이 작품을 읽고 감명 받은 것이 있었다. 산택재는 이 작품이 주는 교훈적 의미가 강하게 다가와 이것을 명으로 삼아서 반성하는 자료로 삼고 싶어 했다. 산택재도 결국은 송옥의 「초혼」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보아야 한다. 송옥의 「초혼」은 첫 부분은 다음과 같다.

|                      |         |
|----------------------|---------|
| 짐은 어려서부터 청렴개결 했음이어   | 朕幼清以廉潔兮 |
| 몸소 의를 실천함에 부끄러움이 없었네 | 身服義而未沫  |
| 이것이 융성한 덕을 주관함이어     | 主此盛德兮   |
| 그러나 세속에 이끌려 덮여졌도다    | 牽於俗而蕪穢  |

이것은 기원전 약 2,300년 전쯤에 쓰여진 것이다. 굴원의 작품이라고도 하고 굴원의 제자 송옥의 작품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첫 구절을 보면 굴원의 형상이 드러난다. 주희는 『楚辭集注』에서 이 작품을 송옥의 작품이라고 했다.

산택재는 주희의 『楚辭集注』를 통해 초사를 이해하고 있었다. 呂大臨은 張橫渠의 제자로서 성리학의 대가였다. 여대림이 이것을 모방하여 「擬招辭」를 지은 뜻이 다분히 유교적이어서 좋다고 한 것이다. 너무 좋아서, 이것을 본받아 「擬擬招辭」를 지었다고 했다. 이것은 조선의 사부문학에 한 획을 긋는 문제작이다. 산택재는 이를 모방하여 다음과 같이 지었다.

|                     |          |
|---------------------|----------|
| 아득히 나의 성품 하늘에서 받음이어 | 藐余受中而參三兮 |
| 음양오행의 정수를 타고 났다네    | 稟二五之精粹   |
| 이 마음 내면에 충만한 아름다움이어 | 紛既有此內美兮  |
| 갑자기 잃어버리고 떠돌고 있구나   | 忽弱喪而流徙   |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는가? 산택재는 이것을 성리학적 형상사유로 이렇게 고쳤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다. 송옥의 주제의식과 산택재의 주제의식은 다르다. 산택재는 죽어서 흩어지는 영혼을 찾는 과정을 맹자가 말한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학문의 방법으로 변용하여 읊었다. 산택재는 형식은 楚辭, 「초혼」을 모방했지만 내용은 성리학적 요소로 다분히 창의적이고 새로운 내용이다. 「초혼」을 유교적으로 재창조하였던 것이다.

|                                  |           |
|----------------------------------|-----------|
| 혼이여 돌아오라 지금이 올 때이다               | 魂兮歸來 迨其今些 |
| 예전에 그대는 이 자리에 있어 만물이 구비되니        | 君昔在矣 萬物備些 |
| 군신유의하고 부자유친하며 형과 아우 우애로웠네        | 君臣父子 兄若弟些 |
| 지금은 그것이 떠나버려 군왕을 어기고 표독한 사람 되었으니 | 今其去矣 騫王虺些 |

초사는 한나라로 접어들면서 詞賦로 계승 되었고, 문장의 수사에 대한 추구는 후대 변문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초사의 형식은 7언시 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중국문학사에 낭만주의 문학의 씨앗을 뿌렸다.

사부의 문체는 초사에서 생성된다. 이것은 우리 문학사에 소략한 사부문학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한국 사부문학의 정수로서 그 가치가 높다.

석복 신흥수는 그의 친구 두기 최성대의 죽음을 애도하여 「초혼」을 모방하여 「반초혼」을 지었다.

|                           |           |
|---------------------------|-----------|
| 남랑·안상·영랑·술랑 네 신선과 즐거이 노닐며 | 南詳述永四郎嬉嬉些 |
| 모두 그대의 벗이라 그대 돌아옴을 기뻐하네   | 此皆子友樂子之徠些 |
| 용가와 운려를 타고 내려와 맞이하고       | 翀其下迎龍駕雲旂些 |
| 서로 마주보고 웃으며 그대 잘 돌아왔다네    | 相視而笑子善歸些  |

석복 신광수는 금강산과 동해안을 천당과 극락세계에 비유하며 초사 초혼의 소재들을 우리나라 동해안의 아름다움과 전설로 천당을 꾸민다. 우리의 신라시대 화랑들의 영혼들과 어울려 저승에서 즐기는 두기 최성대의 영혼을 찬미하고 있다. 초혼에서는 혼이여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석복은 반대로 혼이 머물만한 곳이니 혼이여 돌아오지 말라고 「초혼」의 형식을 정반대로 모방하고 있다.

|                               |           |
|-------------------------------|-----------|
| 화려한 연회를 베푸니 진선들이 모이고          | 瓊筵迺肆集羣眞些  |
| 羨門子高와 安期生이 삼신산을 다스리네          | 羨門安期司三神些  |
| 사해에 바빠 돌아다니는 기이한 빛의 사람들       | 奔走四海奇光之人些 |
| 얇은 비단 옷, 하늘의 별만큼 넘치고          | 雲綃霧縠煜燐氤氳些 |
| 높다란 상투에 패옥을 주렁주렁 달았도다         | 角髻峩峩珮紛纒些  |
| 구운 봉황, 삶은 용, 자른 푸른 사슴의 진기한 요리 | 炮鳳烹龍翠麟些   |
| 운으로 합주하니 넓은 뜰에 아름다운 선율 흐르고    | 雲璈合奏廣庭嬋些  |
| 비경과 소옥이 날아다니며 춤추고 노래 부르도다     | 飛瓊小玉汎舞歌些  |
| 단아한 자태, 아름다운 미모의 많은 여인들       | 綽約婀娜姸容多些  |
| 옥 술잔 몇 순배 도니 못 손님들 취기 오르도다    | 玉醴屢飛衆賓酩些  |
| 석양이 진 뒤에도 연주는 끝날 줄 모르네        | 羲和旣入樂未央些  |
| 십주가 모두 즐기니 어느 한 곳이 아니어라       | 十洲多娛匪一方些  |

신광수의 「반초혼」에는 「초혼」처럼 음악도 나오고 미인도 나오고 음주가 무도 나온다. 저승세계의 극락을 우리나라의 향토적 정서로 묘사하여 초나라의 선경을 우리나라 동해안 금강산 풍경을 바탕으로 차경하고 있다.

|                                       |           |
|---------------------------------------|-----------|
| 동제곡, 백구사 노래가 울려 퍼지네                   | 銅鑼白鳩土歌流些  |
| 낙산사에는 쇠림이 쓴 현판이 남아 있도다                | 洛山崔嵬鏤板留些  |
| 명사십리 해당화 쇠피리 소리에 한들거리네                | 鳴沙海棠裊鐵笛些  |
| 교활한 귀신이 國島 <sup>37)</sup> 에 시를 새겨 놓으니 | 鬼神狡獪國島鑿畫些 |
| 총석경 여섯 기둥엔 먹빛이 한결같고                   | 叢石六面壹繩墨些  |

|  |            |
|--|------------|
| 서른여섯 봉우리 <sup>38)</sup> 붉은 글씨 마멸되지 않았네 | 三十六峰丹書之不滅些 |
| 사선정을 비난하니 해와 달빛마저 어두워졌고                | 詰彼四仙荒月日些   |
| 삼일포에서 머무르니 황홀하기만 하였네                   | 三日焉留迺恍惚些   |
| 섭영을 쫓아가니 옛날과 하나가 되고                    | 追蹤躡景與古爲一些  |
| 한송정 경포대서 밝은 달을 구경하네                    | 寒松鏡浦觀明月些   |
| 죽서루서 노래하니 아득히 하늘이 푸르고                  | 竹西歌吹杳空碧些   |

.....

.....

|                             |           |
|-----------------------------|-----------|
| 중향봉은 천지가 개벽할 때부터 눈처럼 하얗고    | 衆香如雪自開闢徠些 |
| 화룡연, 진주담, 만폭동의 폭포 우레처럼 울고   | 火龍眞珠萬瀑礮雷些 |
| 봉래풍악, 원화동천을 사자바위에 새겨 놓았네    | 蓬萊元化草狻回些  |
| 보덕굴 암자 백 길 쇠사슬로 매달아 놓은 듯한데  | 普惠縣空鐵索百丈些 |
| 구룡연 깊이 서린 용 간간이 비바람 몰고 오네   | 九龍深蟠風雨往往些 |
| 금강산 일만 이천 봉 중에 비로봉이 제일봉이라   | 一萬二千毗盧爲長些 |
| 비로봉 꼭대기엔 사물 없고 아득히 구름만 넘실대네 |           |

其上無物游氣莽蒼些

동쪽 깊은 못에서 물 쏟아내니 하늘까지 솟구치도다.

東瀉一泓水天蕩蕩些

『초혼』의 배경이 되는 초나라의 아름다운 경치를 우리 금강산과 동해안으로 치환하고 있다. 진나라에서 죽은 초나라 회왕의 영혼을 초나라로 불러오는 초혼의 형식을 고수하면서도 그 내용은 우리 동방의 關東八景과 금강산의 선경을 아름답게 묘사하여 영혼이 노닐만한 곳으로 설정하고 있다. 혼령이 내려가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니 성곽도 옛날 그대로요, 백성들도 그대로다. 민간의 노래인 동제곡이나 백구곡이 여전히 불려지고 있다. ‘서른여섯 봉우리 붉은 단서’는 신라의 사선이 사흘 동안 머물며 노닐었다는 삼일포의 石壁에 새겨진 ‘述郎徒南石行’이라는 붉은색의 여섯 글자를

37) 강원도 固城 위에 위치한 安邊 앞바다의 작은 섬으로, 기이한 비경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진다.

38) 도가의 三十六洞天과 관련된 것으로, 신선이 산다는 서른여섯 곳 명산의 골짜기이다.

말한다. 옛날에 그 고을 사람이 유람 온 사람들 접대하기가 너무 괴로워서 그 글씨를 깎아 내려고 하였지만, 5寸가량 깊이 새겨져 있어 字畫을 없애지 못했다<sup>39)</sup> 이야기를 재구성한 경우이다.

|                              |            |
|------------------------------|------------|
| 혼이여 해산이 맑으니 돌아오길 잊으라         | 魂兮海山澹忘歸些   |
| 끝 없는 기약 세속에 막혔으니             | 無涯之期杜一機些   |
| 그 즐거움 저와 같으니 누가 잘잘못을 따지랴.    | 其樂如彼孰是非些   |
| 동서남북 가운데 동방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니    | 四方之中東方最樂些  |
| 혼이여, 돌아오지 말라! 동방은 그대 의탁할 곳이니 | 魂兮無歸東方可以托些 |

『초혼』에서는 동방은 사람이 살지 못할 곳으로 비유하며, 혼이여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으나 신광수는 『반초혼』에서 금강산의 화려한 경관을 묘사하며 동방은 살 만한 곳이니 혼이여 돌아오지 말라고 하고 있다. 조선의 정치적 상황이 두기 최성대의 영혼이 머물기에는 족하지 않다. 석북 신광수는 초월적 상상력을 『초혼』에서 모방했다. 『초혼』의 낭만적이고 유미주의적인 초월적 상상력을 모방하여 금강산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천상계 선계와 지상계 선계를 열거하여 초현실주의적 색채로 물들였다.

신광수는 이승에서 받은 고통과 상처를 입은 최성대의 영혼을 『초혼』의 자유롭고 낭만적인 형식으로 영혼을 위로하며 친구를 잃은 슬픔을 달래고 있다. 석북 신광수의 『반초혼』은 논문의 성격은 다르지만 연구된 적이 있었다.<sup>40)</sup>

39) 『稼亭集』, 제5권, 『東遊記』, “初四日 早起至三日浦 浦在城北五里許 登舟至西南小嶼 穹窿一巨石也 其頂有石龕 龕中有石佛 俗所謂彌勒堂也 其崖東北面 有六字丹書 就視之則兩行行三字 其文曰述郎徒南石行 其述郎南石四字 則明甚 其下二字 稀微不可識.”

40) 이기현(1995), 871~906쪽; 김경희(2015), 9~42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혼」은 조선의 선비들에게 다양하게 수용되어 그 빛을 발산하고 있다.

#### 4. 결론

이상으로 「초혼」을 문학적 방면에서 고찰하여 그 원형을 분석하고 조선 시대를 중심으로 수용 확산된 면면을 살펴보았다. 「초혼」은 천상의 세계인 지옥설과 천당설이 최초로 설정된 상상력과 창의력이 넘치는 작품이다. 작품의 분석은 사후세계의 혼백론, 귀신론 등 샤머니즘과 상례와 관련된 동양 예학, 그리고 철학 등 동양학의 출발점이다. 「초혼」은 묘도문자, 묘지명, 만사, 제문, 노포, 등 동양 문학예술의 기원을 말해준다.

「초혼」 한 편만 이해하고 감상하더라도 황화문명의 문학을 말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실로 문학의 시원이요 보고이다. 아울러 「초혼」 한 편은 동양 민속의 보고요 심연이다. 「초혼」 한 편은 초월주의·유미주의·낭만주의·쾌락주의 등 문예미학과 문예사조의 본향이요, 주거·건축·원림·장식·음식·음악·놀이 등 동양 문화의 시원이자 보고임도 밝혀준다.

「초혼」은 난해한 작품이지만 일찍부터 문인들의 관심을 주도해 왔다. 동한의 사마천을 비롯하여 동한의 왕일 등 기원전부터 언급되기 시작해서, 중국의 광활한 역사 대대로 문학 비평에서 빠질 수 없었다. 「초혼」은 많은 문학 작품에 영향을 끼쳤으며 그를 모방한 작품도 그 수를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이다.

「초혼」은 270구의 장편 시가로서 <序辭>, <本辭-招魂辭>, <亂辭>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序辭>는 상제, 곧 하늘님의 명으로 무당 무양의 구기를 통해 영혼을 인도하게 되는 문답식 구도로 구성되어 있다. <本辭>의 전반부는 천지 사방에 온갖 악령들과 괴물들을 등장시켜 공포

를 조장하고 무서운 지옥의 세계를 상상하여 영혼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설정하고 있다. 무서움과 공포를 조성하는 기발한 창의력과 상상력은 일찍이 없었던 문장 구사력의 이체다. 후반부는 초나라를 미화시킨 극락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궁실의 건축에 대한 지극한 아름다움, 장강의 아름다운 자연 조건과 온갖 기화요초로 꾸며진 정원, 정자의 원림, 각종 음식, 여색, 음악, 놀이 등 초나라의 민간에서 유행하던 토속 신앙과 다양한 민속 문화를 바탕으로 누릴 수 있는 인간계의 지극한 쾌락적인 묘사를 통해 천상의 낙원으로 꾸며지는 대립적 구도를 지향하고 있다. 「亂辭」는 작품 속에 내재된 초월적인 세계관과 영혼의 불멸을 통해 상상되는 인생관 그리고 가치관 등이 새롭게 설정되고, 염세주의와 쾌락주의 낭만주의와 유희주의의 순수한 감정의 유로를 통해 드러나는 아름다운 문장은 수사력의 극치를 보여준다. 「초혼」은 그 위상과 문예미학의 우수성이 입증된 훌륭한 문학작품이다. 위대한 작품은 수용되고 확산된다. 「초혼」은 조선시대 문인들에 의해 애송되었고, 지식의 형성과 특징을 바탕으로 수용되고 확산되면서 조선의 만사에 「초혼」의 문구가 없으면 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게 수용되고 있었다. 「초혼」은 다양한 장르에 수용되고 확산되면서 조선의 문학 속에 앙금처럼 녹아서 영롱하게 그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앞으로 초사 「초혼」에 대한 연구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權輶, 『石洲集』.  
 金壽恒, 『文谷集』.  
 金允植, 『雲陽集』.  
 金正喜, 『阮堂全集』.  
 金昌協, 『農巖集』.  
 南九萬, 『藥泉集』.

- 梁啓超, 『要籍解題及其讀法』, 『梁啓超全集』, 北京出版社, 1999.
- 盧守愼, 『蘇齋集』.
- 李瀛, 『星湖僊說』.
- 李廷求, 『月沙集』.
- 朴趾源, 『燕巖集』.
- 徐居正, 『四佳集』.
- 申維翰, 『海行摠載』.
- 劉勰, 『文心彫龍』.
- 李德懋, 『靑莊館全書』.
- 蔣之翹, 『七十二家評楚辭』(卷七)[M], (明天啓元年本)
- 鄭蘊, 『桐溪集』.
- 周建忠, 賈捷, 註評, 歷代名著精選集『楚辭』, 鳳凰出版社, 2006.
- 車天輅, 『五山集』.
- 崔岏, 『簡易集』.
- 黃景源, 『江漢集』.
- 『史記』.
- 『楚辭』.
- 김경희, 「石北 申光洙의 <反招魂>에 대한 考察」, 『한문학논집』 40, 근역한문학회, 2015.
- 신두환, 「谿谷 張維의 漢詩에 나타난 楚辭 수용의 미의식」, 『한문학논집』 31, 근역한문학회, 2010.
- \_\_\_\_\_, 「고전시가에서 문자 메시지와 이미지의 상관관계에 관한 일 연구」, 『한국시가연구』 17, 한국시가학회, 2005.
- \_\_\_\_\_, 「茶山の 유배 漢詩에 나타난 屈騷의 미의식」, 『한문학논집』 28, 근역한문학회, 2009.
- \_\_\_\_\_, 「朝鮮士人들의 楚辭 受容과 그 美意識」,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2010.
- 유인영, 「楚辭, <招魂>篇의 儀禮에 대한 考察」,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1987a.
- 유인영, 「楚辭, <招魂>篇의 儀禮에 대한 연구」, 『종교연구』 3, 한국종교학회, 1987b.
- 이기현, 「石北의 <反招魂> 研究」, 『한국의 언어문화』 13, 한국언어문화학회,

1995.

투고일 2018. 7. 31 심사시작일 2018. 8. 20 게재확정일 2018. 9. 12

*Abstract*

A study on The <Chosa(楚辭)-the Chohone(招魂)>'s  
Acceptance and diffusion.

Shin, Doo-hwan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Chosa(楚辭)-the Chohone(招魂)>'s the status and the aesthetic sense of Acceptance and diffusion in the Joseon Dynasty. 屈原(Qu Yuan)'s Cho-sa, <the Chohone(招魂)> is the best <A queer poem> in china. <the Chohone> is Mandarin tree analogy for his firm and the simplicity of branches through the work.

It consists of Four Letter Extended song, a total of two sections, consisting of a total of Four Letter A three-sixth line and a total of nine verses. The painting is a great piece of art, such as description, metaphor, symbolism, personification, and typing skills.

Cho-sa, <the Chohone> is Based on the ecological ecology of the mandarin tree, the author wrote, " It is written on the basis of the ecology of the tree, and the author of the cave, and the spirit of the cave. " It is also a masterpiece of Chinese literature and literary works, and it is a pioneering work of ecopoetry and green literature.

The theme of the faithful <the Chohone> was the fidelity of loyalty and fidelity from heaven and the spirit of loyalty to the faithful, based on the spirit of loyalty and patriotism. On the basis of this artwork, the whole notion of God was buried in the ground.

Qu Yuan's Cho-sa, <the Chohone> is Many of the scholars of the cave were sent to Ephesus by numerous scholars of Joseon Dynasty. The Chohone is Joseon Dynasty's scholars from various fields show various traces of diverse texts in various fields.

In Joseon, tangerines were grown in Jeju Island. The Joseon Dynasty, which was transported to Jeju Island during the Joseon Dynasty, saw the taste of a tangerine in Jeju Island, reminiscent of the song of the oyster, and

expressed its feelings.

Qu Yuan's <the Chohone> was brilliantly illuminated in various works of Joseon Dynasty.

**Keywords** Qu Yuan, Cho-sa, the Chohone(招魂), Acceptance and diffusion, the Joseon Dynasty.